



2025년 6월 4일 수요일

날씨 맑음 ☀️

“한강공원 배달음식, ‘다회용기’ 주문 어때요”

東亞日報

서울시, 배달앱 다회용기 주문 운영
여의도-독섬 등에 용기 반납 공간도
세척업체, 7단계 세척-살균 등 거쳐
“아직 이용 적어, 시민들 동참 필요”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독섬한강공원. 스마트 폰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켜 뒤 음식 배달 테마 중에 ‘간편한 다회용기’를 선택했다. 공원 근처 다회용기 사용 매장 목록이 나왔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가게들이었다.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독섬한강공원 ‘다회용기 전용 반납함’ 앞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한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스테인리스 밀폐 용기에 담겨 왔다(왼쪽 사진).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잇그린’에서 직원들이 수거한 스테인리스 그릇을 세척하고 있다.



2025년 05월 19일



● 한강공원서 다회용기 배달 주문 가능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한강공원에서 배달

음식 다회용기 반납함 운영을 시작했다. 한강공원 에 놀러 온 시민들이 환경 오염과 쓰레기 배출을 막기 위해 다회용기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전용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 인터페이스에 들어가 ‘다회용기 반납하기’를 누르고 반납할 위치를 지정해 신청할 수 있었다. 이어 한강공원에서 사용한 다회용기를 수거하는 민간업체를 방문해 용기 세척 과정을 살펴봤다. 이곳에서는 △에벌 세척 △블림 스프레이 △세척 △행균 스팀조 △살균소독 △전수검사 등 총 7단계에 걸쳐 다회용기를 관리하며 음식점에 공급하고 있었다. 그곳 푸경 고무 패킹도 일일이 빼내어 닦고, 위생 검사인 유기물 오염도(ATP) 측정도 이뤄졌다.

★ 나의 생각과 느낌 ! ~ ~ ~ ~ ~ !

→ 나는 이 기사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매일 같이 편리함을 좇아 무심코 사용하던 일회용품들이 사실은 지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습관 하나 하나가 모여 지구를 지키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니 행동을 행동으로 옮겨 한번 실천을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고, 마음이 움직였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외출할 때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꼭 챙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문화나 유행을 퍼뜨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사회 전체가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번 기사를 통해 나는 소비의 편리함보다 환경을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다. 더 이상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지구와 다음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더 노력한다면, 그 노력들이 합쳐져 거대한 힘이 되어 분명 더 푸르고 맑고 깨끗한,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지구를 지키기 위한 나의 실천 ! ~ ~ ~ ~ ~ !

→ 오늘도 나는 텀블러를 챙겨 학교에 갔다.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이 뿌듯해졌다. 처음엔 단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했지만, 이제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내 일상의 당연한 습관이자 자라가 되었다. 이 작은 텀블러 하나에는 단순히 음료만 담긴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환경을 지키겠다는 나의 다짐이 함께 들어있다. 비록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나의 이런 선택이 더 나은 지구를 위한 시작이라고 믿는다. 사진 속 나의 모습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지구를 위한 나의 실천이 담긴 소중한 기록이다. 나의 이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어, 더 많은 이들이 환경을 위해 행동하게 도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변화가 모여, 우리가 함께 지구를 지키는 진짜 힘이 도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전서
개 줄고!
하는 수
대부분이
이어질
슈타인
가 만
최재천
서울경제
아직 기
공은 인
수의 급
의 상
더 힘
지구온
생물다
부차적
있지만
양성 감
작용할
2015년
지구 온
-2.0도
구 온도
의 절반
생물학
것으로
류 멸종
고 경고

→ 나는
아기를
나고 한
생각하
래는 아
화하고
뒤 영
관도 합
해서 나
결음이
한다는
한해지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날씨 맑음 

"꿀벌처럼...생물종 줄면 기후변화 만큼 위협적"

05월 19일

미려한 것이다. 간접체를 고 있었다. 그곳

물품들이 많기까지, 편하게 누워 이리저리

이런 초록색 나무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특히 초록색 나무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특히 초록색 나무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초록색 나무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특히 초록색 나무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특히 초록색 나무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꿀벌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단순히 벌꿀을 먹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꿀벌이 사라지면 작물 대부분이 사라져 엄청난 식량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전망하기도 했지요." 최재천 이화여대 애코과학부 석좌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류는 아직 기후변화에 비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물종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멸종 위기종으로의 상행이 당장의 기온 상승보다 인류를 더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구온난화로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처럼 생물다양성은 기후 변화로 인한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오히려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가 인류에게 더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이다. 그는 "세계는 2015년 유엔 파리기후변화총회를 통해 지구 온도의 상승 폭을 이번 세기 내 1.5~2.0도 내로 억제하기로 약속했지만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 전체 생물종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며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 그 결과 인류 역시 멸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때라면 인류 멸종이 80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브라질의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통해 닭의 멸종을 가정한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인류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육류인 닭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로 멸종한다면 닭의 조상인 야생 닭인 멧닭을 찾아서 다시 가축화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멧닭 역시 일부 종이 이미 절멸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최 교수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닭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거나 매추라기-타조 고기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일파든지 일어날 수도 있다"며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근원은 전부 자연에서 나온 건데 그 원소가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대벌레-러브버그의 출현도 생물다양성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생물종의 감소가 특정 개체의 급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시적이다. 그는 "다양한 종들이 모여서 생태계를 이루기 때문에 어느 한 종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어렵는데 다양성이 사라지면서 특정 곤충이 경쟁 없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이 근래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생물다양성 감소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대로 보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곤충의 경우 종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개체 수 역시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만큼이나 기후변화나 오염으로 파괴된 자연을 인간의 힘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저포자기' 현상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로 야생으로 환원한다는 의미의 '활성운동'을 펼치고 있다. 자연 그대로 생태계가 회복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는 "그동안 환경이 파괴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한편 파괴되면 되돌리기 힘들다고만 얘기해 왔는데 이제는 회복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며 "인간이 활동을 멈추면 자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어떤면 파괴된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간은 모든 생물 가운데 유일하게, 다양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이해가 인간 사회의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단순히 생물다양성이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인간의 생존과 행복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인지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 05월 21일

서울경제

'생물다양성의 날' 맞아 중급급 경고 지구온도 2도 오르면 중 멸한 사라져 기온상승보다 인류 더 위협할 수도 생태계 회복 위한 '활성운동' 매진 을 강단 떠나-대중강연-집필 지속 사회에도 필요 다양성' 계속 알릴 것



★ 나의 생각과 느낌 ★

⇒ 나는 이 기사를 읽고 꿀벌 한 마리가 사라진다는 건 단지 벌꿀을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울경제 기사에서 최재천 교수의 얘기를 읽고 나는 처음으로 그 무게를 실감했다. 꿀벌이 사라지면 작물 대부분이 사라지고, 작물이 사라지면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이 사라지는 엄청난 식량 대란이 초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전망하기도 했지요. 최재천 이화여대 애코과학부 석좌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류는 아직 기후변화에 비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물종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멸종 위기종으로의 상행이 당장의 기온 상승보다 인류를 더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대벌레-러브버그의 출현도 생물다양성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생물종의 감소가 특정 개체의 급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시적이다. 그는 "다양한 종들이 모여서 생태계를 이루기 때문에 어느 한 종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어렵는데 다양성이 사라지면서 특정 곤충이 경쟁 없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이 근래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생물다양성 감소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대로 보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곤충의 경우 종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개체 수 역시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만큼이나 기후변화나 오염으로 파괴된 자연을 인간의 힘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저포자기' 현상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로 야생으로 환원한다는 의미의 '활성운동'을 펼치고 있다. 자연 그대로 생태계가 회복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는 "그동안 환경이 파괴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한편 파괴되면 되돌리기 힘들다고만 얘기해 왔는데 이제는 회복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며 "인간이 활동을 멈추면 자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어떤면 파괴된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간은 모든 생물 가운데 유일하게, 다양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이해가 인간 사회의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단순히 생물다양성이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인간의 생존과 행복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인지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지구를 지키기 위한 나의 실천 ★



⇒ 오늘 점심시간 나는 교실창문이 커져있는 걸 보고 조용히 스위치를 껐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살만으로도 교실은 충분히 밝았고, 굳이 전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 보였다. 이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을 행동이었지만, 요즘 나는 전기를 끄는 이 짧은 순간조차도 더 이상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상 기후, 미세먼지, 멸종위기의 동물들... 지구는 지금 분명히 아프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무관심이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또 부끄럽다. 그래서 나는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다. 전등을 끄는 것,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 물통을 아껴 쓰는 것.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에게는 약처럼 작은 처방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오늘 내가 꺼버린 건 단지 전등 하나가 아니었다. 편리함에 무뎠던 우리의 무관심과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었다. 그 대신 켜진 건, 환경을 아끼는 마음과 내 안의 책임감이었다. 나는 전등을 끄는 그 짧은 순간, 마치 아픈 자에게 조용히 손을 건네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지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내 마음은 더 맑게 느껴졌다. 전기를 끄는 일은 잠시의 어둠이었지만, 그 어둠은 지구에게 주는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내 손 끝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내가 꺼버린 불빛만큼 작은 불꽃이 있고, 우리가 함께 실천하는 만큼 지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나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실천할 것이다. 지구가 더 오래도록 슬수고 반짝일 수 있도록.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날씨 맑음

한 해 버려지는 우산 4000만개... 바짝 말리고 고이 접어 오래 써주세요

경향신문

2025년 05월 23일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소나기(조르루)'에 이런 가사가 있다. "편의점에 우산은 너무 비싸서" 2012년 이 노래가 나올 무렵만 해도 편의점 우산 가격은 국립한그릇보다 비쌌다. 그래서 웬만한 비는 그냥 맞았다.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에는 3000원짜리 비닐우산을 파는 상인들이 어지러져 있었다. 급할 때는 비닐우산을 사는 게 경제적이라고 생각했다. 써나갈 걸까 하고 물어봐도 죄책감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폐기되는 우산의 양은 대략 4000만개. 이산화탄소와 유해가스 배출량은 2021년 기준 276만8000t에 이른다.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12.7t, 환경부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폐기 우산이 약 20만명이 1년 동안 배출하는 가스량에 해당하는 셈이다.

2025년 현재 우산은 커피 한 잔만큼 싸고, 비닐우산은 일회용품처럼 쉽게 버려진다. 우산은 분리배출도 까다롭다. 결국 우산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든 오래 써야 한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리페어카페 '수리상점 공손'(이하 공손)은 매주 우산 수리 모임을 연다. 수리장인 박성규 스승님의 지도 하에 자발적으로 우산을 고치는 사람들은 우산수리팀 '호우호우'를 결성했다. 이강기후로 발생하는 집중호우의 심각성을 알리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다. 나의 수리 실력은 아직 서툰 게 수준이나, 그래도 몇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첫째, 비닐우산은 절대 사지 않는다. 받수원 단과 금속 살대로 만든 우산은 대부분 고철 방법으로 있고 해체하면 다른 우산을 고치는 재료가 된다. 말하자면 정기를 이식하는 것과 같다. 우산천(canopy)의 쓸모도 다양하다. 선종기커버나 도시락 가방, 팔도시 같은 유용한 아이템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반면, 비닐우산은 플라스틱 재질이라 부품으로도 쓸 수 없고, 캐노피도 재사용이 어렵다. '경제적인 선택'의 기준을 지구의 관점으로 확대한다면, 비닐우산은 전혀 경제적이지만 안 된다.

둘째, 바느질을 열심히 하면 고장을 예방할 수 있다. 살대들은 서로 힘을 나누어 지탱하며, 옆 살대가 고열 살대를 보호하는 관계성이 있다. 살대의 실이 하나 끊어지면 우산을 펴고 접을 때마다 힘이 고루 가닿지 못하고, 제 위치를 벗어난 살대는 쉽게 망가진다. 나머지 살대도 함께 약해진다.

우산의 실이 떨어졌을 때 즉시 꿰매는 것이 아깝고, 우산의 수명을 연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실질 펴고 바짝 말려 고이 접어 오래 쓰세요' 이것은 호우호우의 구호이다. 우리는 우산을 오래 쓰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젖은 우산을 펼쳐 말리면 캐노피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고, 실이 녹슬지 않는다. 잘 말린 우산을 고이 접어두면, 실수로 발견나뒤틀리는 일이 적다.

이 간단한 규칙들을 지킨다면 애착 우산을 오래오래 쓸 수 있다. 고장이 났다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우산 수리센터나 수리상점 공손에 수리를 맡겨보자. 한 우산에 집신인 사람들이 당신의 소중한 우산을 기다린다.



수리하는 생활

모호연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사람. 일상 속 자원순환의 방법을 연구하며, '우산수리팀 호우호우'에서 우산을 고친다. 책 <반려물건> (반려공구)을 썼다.



나의 생각과 느낌

이 기사를 읽는 순간, 나는 잠깐 멈춰서 내 우산을 떠올려 보았다. 비 오는 날 우산고 들고 나갔다가 고장 나면 아무런 걱정 없이 쓰러지듯 버려지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무려 4천만 개라니...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숫자였다. 우산은 우리가 비를 피하기 위해 작게 사용하는 물건일 뿐이지만, 그것을 만드는 데는 자원과 에너지가 들고, 버려진 뒤에는 분해되지도 않고 오랫동안 땅속에 남아 지구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마음 아팠다. 예 보고 싸다는 이유로 쉽게 사고, 고장이 나면 쉽게 버리는 소비 습관이 결국 지구를 병들게 하는 거 같았다. 나는 그동안 나도 모르게 지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웠다. 특히 기사 속 '우산 수리센터' 이야기가 꽤 마음에 남았다. 남들이 버린 우산을 고치고,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들의 손길은 마치 아픈 지구에게 조용히 약을 발라주는 의사처럼 느껴졌다. 나는 지금까지 "고치기보다는 새로 사는 게 빠르다"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고쳐 쓰는 삶이야말로 정말 멋지고 지구를 위한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우산을 오래 쓰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다. 비가 온 뒤 말려서 잘 접고 보관하기, 서로 나누어 쓰기, 고장 나면 버리기 전에 수리해 보기. 이런 쉬운 일들 속에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숨어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나부터라도"라는 다짐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고, 지구도 분명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 나는 우산뿐 아니라 나의 모든 소비 습관을 다시 돌아볼 것이다.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쓰고 고쳐 쓰는 것.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정성을 들이고, 내 물건에 애정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지구를 향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기사를 읽고, 나는 단지 우산을 아껴 쓰자는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구를 아껴야 한다는 진실 어린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변화의 첫 걸음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한 걸음으로.

지구를 지키기 위한 나의 실천



요플레를 다 먹고 난 뒤, 나는 그 작은 플라스틱 컵을 조심스럽게 씻어 해변에 버려두었다. 그저 쓰레기 하나를 정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내 마음 속에는 '지구를 위한 작은 책임'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1분의 수고를 아끼는 동안, 지구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그 플라스틱과 함께 버텨야 한다는 걸. 플라스틱이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씻은 이 작은 용기 하나가 어찌하면 한 마리의 새끼를 낳고, 나아가 지구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그냥 버려도 되겠다"는 무책임한 선택 대신, "나는 지금 지구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어"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니, 아주 사소한 습관조차 의미 있는 실천이 되었다. 우리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꼭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다. 손끝의 정성, 눈길의 배려, 마음의 실천이 쌓이면 그것이 모여서 지구를 살릴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요플레 컵 하나를 씻은 오늘, 나는 분명히 더 나은 지구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작은 행동이, 나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소망한다.



백서연 중학교 2학년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날씨 맑음 ♡ ㄸ

요 05월 23일

5년 후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To. 5년 후 성인이 된 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너는 2030년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을 테지. 창밖의 나무들은 아직 푸르니? 아니면, 또 한 번의 기록적인 폭염에 시들어 버린 여름일까? 요즘 들어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 예전에는 그저 '배경' 처럼 여겼던 숲과 바다와 하늘이, 이제는 함께 숨쉬는 '존재' 처럼 느껴지거든. 기억나? 어린 시절 즐겨보던 바닷가의 조개 껍데기, 비오는 날 창틀에 맺힌 빗방울, 매미 울음소리조차 특별하던 그 여름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어느날 부터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지구를 '있을 수도 있는 친구' 처럼 느끼게 되었어. 그래서 결심했어. 지구에게 밟지 않는 삶을 살아보자고. 텀블러 하나 들고 다니기, 장바구니 챙기기, 안 쓰는 콘서트 볼거나 스우치 끄기, 멀지 않은 가까운 곳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나는 알고 있어. 그 모든 행동들이 모여 어떤 나무는 베어지지 않았고, 어떤 새는 둥지를 잃지 않았으며, 어떤 아이는 더 많은 하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걸. 그리고 아예 묻고 싶어. 너는 지금 어떤 지구를 살고 있니? 2030년의 너는, 어떤 선택들을 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니? 혹시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소중히 지켜오던 가치를 놓치지 않았니? 아니면, 지금의 이 다짐들이 너의 일상이 되어, 지구를 더 푸르게 만들고 있니? 현실이 부디, 지금의 내가 품은 이 따뜻한 결심이 시간 속에서 희미해지지 않았기를. 부디, 너의 삶이 여전히 자연을 품고, 함께 숨쉬는 모든 존재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를. 요즘에 플라스틱을 많이 써서 재활용하기 잊지마. 우리는 지구 위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란 걸. 남긴 흔적이 아닌, 남긴 감동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던 그 날들을. 추만순하 그때의 너에게, 나의 깊은 지성을 담아 지구를 사랑하는 2025년의 너로부터. 에 From.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깊게 느끼고 있는 2025년의 내가.

“너는 여전히 지구를 사랑하고 있니?”

2025년의 나

있다
책임
원적도
간을
개끗하
의 사
그날 바
마음
장한
것만
보다
가게



백서연 중학교 2학년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날씨 맑음 ☀️❤️☆☆

조! 골짜기의 바저

쓰레기

(6컷 만화)

5월 12일
 품은 식품 및 건
 용되는 프리미엄
 의 고순도, 기존
 금속 함유량, 그
 이상 높은 생체
 이는 글로벌 유통
 모의 공급계약
 능식품 기업을
 공급한다. 현재
 비구축을 통해
 여 계약 이행에

변 연구 성과
 변환경 칼슘을
 ! 사례라는 데
 드 탄소중립
 신 기술로 글
 화를 지속해

여름만 되면
 냄새 때문에
 못살겠어

이 골짜기들 대체
 어디다 버려야 하나...

한때는 맛있게 먹힌 존재였는데
 지금은 버려진 쓰레기 취급이야...

잠깐! 이진 칼슘 덩어리야
 쓸데가 많을 수 있어!

정말... 나에게는
 쓰임이 있다고요?

이제 나는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에요!

버려진 골짜기...
 콘크리트, 석고보드, 비료로
 다시 태어났어!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야
 모두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버리지 말고, 다시생각해줘!

골짜기, 이제는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자원!

나지

가려져
 않는
 양과

최우수상

백서연 중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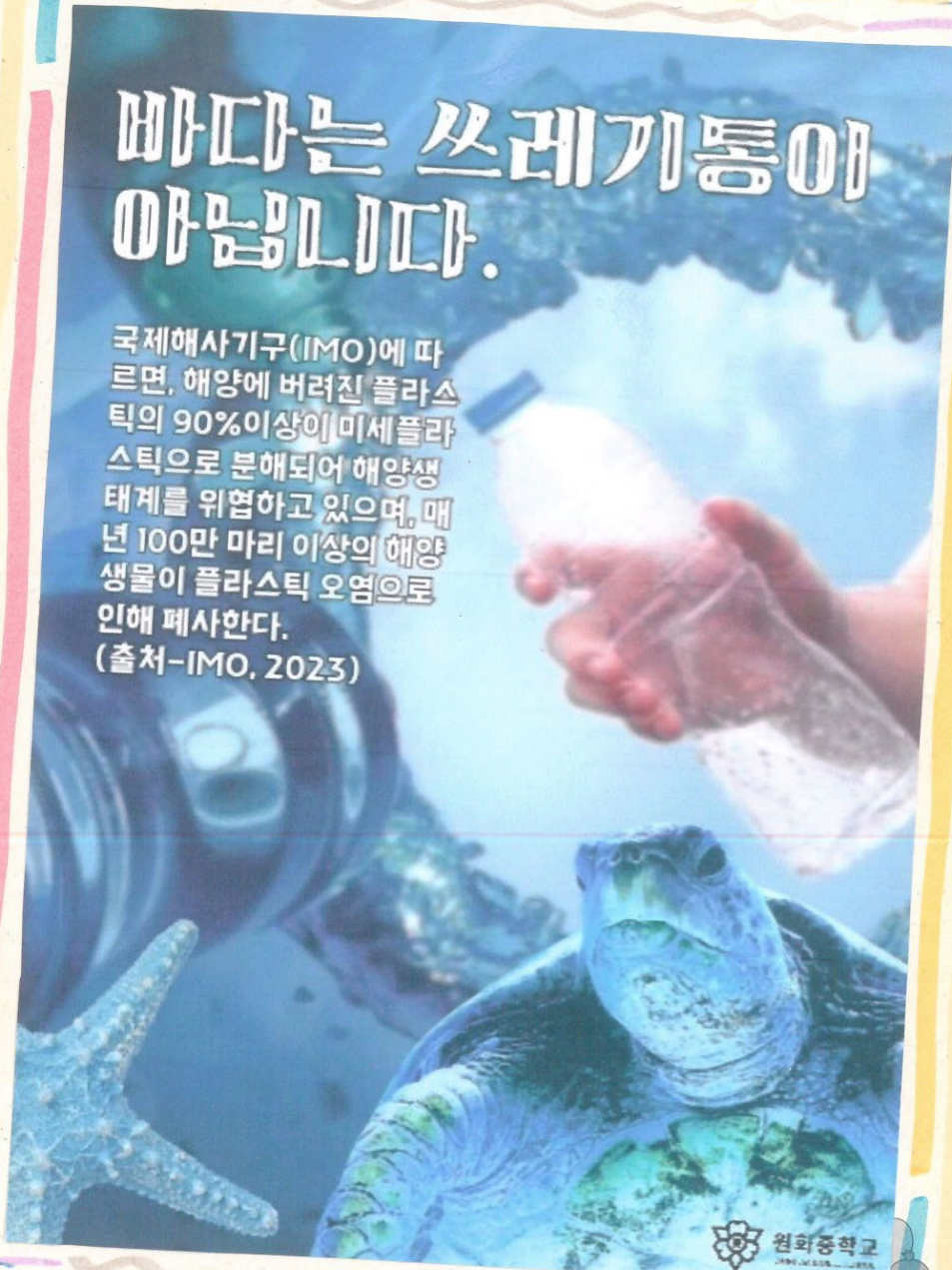
2025년 7월 13일 일요일

날씨 흐림

환경을 위해 포스터 만들기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해양에 버려진 플라스틱의 90% 이상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매년 100만 마리 이상의 해양생물이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폐사한다.
(출처-IMO, 2023)



원화중학교

우리가
게 되
명을
투어
공 남
해 되
지
배하
리가
이원
하게
는 모
작이로
현실을
포스터
쓰레기를
있다'는
누군가의
포스터
아무런
바뀌어
학교나
우리가
인간에
우리 등
안 된
이번
'느낌'
뿐이지
작업을
을 꾸
이 지
계속
바다를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날씨 흐림

환경포스터설명글 - <바다는쓰레기통이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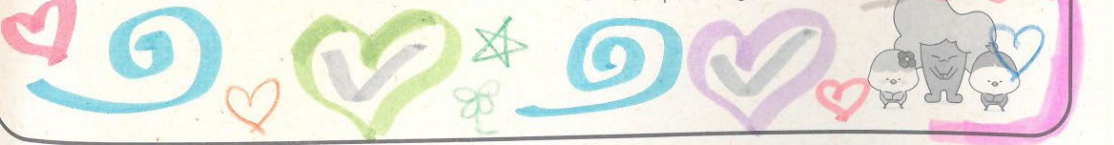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과 비닐이, 결국 바다를 위협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서 죄책감마저 들었다. 한번 쓰고 버리는 물건 하나가 누군가의 명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 그 누군가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 서글펐다. 특히 이번 포스터를 만들기 전, 국제해사기구(IMO)의 보고서를 접하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놓 낼수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에 버려진 플라스틱의 90% 이상이 미세플라스틱으로 해되어 해양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고 한다. 게다가 매년 100만 마리의 해양 생물이 지 "인간의 쓰레기"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나는 이 수치를 보고 큰 분노와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 생물들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고, 그저 인간과 같은 지구에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우리가 만든 오염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나는 포스터를 통해 사람들의 '무관심'을 흔들고 싶었다. 그래서 포스터의 제목을 이렇게 "바다는 쓰레기통이아닙니다"라고 정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은 이 당연한 사실조차 지키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미 수많은 해양 생물이 비닐을 썩이로 착각해 먹고, 플라스틱에 얽혀 다치고, 결국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 나는 이 슬픈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하고 싶지 않았다.

포스터에는 바다거북의 절박한 눈빛과, 누군가의 손에서 버려지고 있는 플라스틱 병, 그리고 바다속 쓰레기들이 함께 담겨 있다. 이 이미지들이 주는 상징은 분명하다. "인간의 행동이 곧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 포스터를 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무심코 버린 그것이 누군가의 죽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주기를 바란다.

포스터를 만들면서 나는 내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플라스틱 컵이나 빨대를 아무렇게나 사용했고,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버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고 느꼈다. 작게는 내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부터, 학교나 친구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바다는 결국 점점 죽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우리의 식탁에도 올라왔고, 공기 중에도 떠다니며,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을 인간과 '별개의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다는 우리의 일부이고, 우리가 숨쉬는 지구의 심장이다.

이번 포스터 활동을 통해 나는 단순히 '과제'를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느낌'을 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짐하게 되었다. 지금은 한 장의 포스터일 뿐이지만, 이 작은 외침이 모여서 바다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이 작업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나는 바다를 지키기 위한 작은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목소리가 되고 싶다. 이 작은 포스터가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작은 목소리라도 계속 외치면 언젠가는 파도가 되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깨끗한 바다를 위해, 나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백서연 중학교 2학년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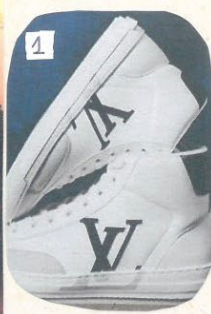
날씨 흐림 ☁️

2

!! ☆ '친환경 경험' 주도해야 살아남는다 ☆ !!

대구신문

2025년 05월 23일



1.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 비통이 제품의 90%가 재활용,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최초의 유니섹스 스니커즈 '찰리(Charlie)'를 출시한 바 있다.



3. 중국 광저우의 펄 리버 타워(Pearl River Tower)는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고성능 유리창 등을 통해제로 에너지 빌딩을 실현했다.



일상 속 디자인 기행

ESG 디자인

올해 기상에보를 보면, 전 지구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현상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 나라 경상북도에서는 올봄 40년 만에 1번의 봄 산설이 무려 7일 동안 전파되었다고 계속되었고, 일본과 태국,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동시다발적인 산설이라는 기후 위기 시대 산설로 인한 손실 역대 최고치 평균기온 상승과 전보다 1.5도 ↑ ESG 제품 구매와 탄소배출 증가율이 발생하였다. 중국에서는 최근 130cm 넘는 비가 내리며 물이 넘고, 담판한 한 뼘이 하늘에서 떨어져 차량이 땅까지 고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뉴스 내용은 마치 지대 영화를 방불케하는 소식들이 번번하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기후 위기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2025년 현재,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뤄줄 여력이 아닌 현재의 현실이다. 2021년에는 산설로 인한 산설 손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항공 산업의 연간 탄소 배출량의 4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되었다. 더구나,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전례 없는 산설 손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항공 산업의 연간 탄소 배출량의 4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랜드 디자인은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지속가능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통합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더 이상 '지속가능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다. 과거에는 친환경 책상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이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전부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소비자는 더 깊은 수준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한다. McKinsey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지속가능성과 ESG를 강조하는 제품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의 판매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확인된다.

현대적 맥락에서 디자인의 역할 또한 근본적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디자인은 제품을 팔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가치를 설계하고 메시지를 시각화하며 행동을 유도하는 전략적 도구다. 그리고 ESG는 그 설계의 중심 원칙이 되어야 한다. 디자인이 환경을 보호하는 소재를 선택하고,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생산 방식을 고민하며, 투명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설계하는 위상이 있다. 즉, ESG 원칙을 '시각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단순한 리사이클링 소재를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패키지의 무게를 줄이고, 잉크를 수용성으로 바꾸며, 분리배출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 이 모두가 환경적 책임을 실현하는 디자인이다. 각 나라들의 유명 브랜드들도 친환경 디자인 원칙에 따라 어감이 통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고객 및 신규 고객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친환경 디자인
가니, 2023년 탄소배출량 7% ↓
본 홀츠하우젠, 비건 가죽 개발
제로 에너지 빌딩 중 펄 리버 타워
를 얻고 있다. 이는 환경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업의 매출을 성장시키는 데에도 분명히 기여하고 있다.

덴마크의 패션 브랜드 가니는 2023년에 절대 탄소배출량을 7% 감소시켰다. 이는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실제 매출량의 절대적 감소를 의미한다. 가니는 소재 선택, 운송, 포장, 제품 수명주기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보너스를 탄소 관련 KPI에 연동시키고, 기후 과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차 한 단계 걸친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루이 비통은 프랑스 중부에 6만5천 평방미터 규모의 생필품기후적 아틀리에를 설립했다. 이 건물은 재활용 금속과 시멘트, FSC 인증 목재 등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태양광 패널과 자연 환기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였다. 이는 루이 비통의 'Our Committed Journey'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모든 생산 및 물류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진정적인 명품 브랜드이자, 동시에 조용히 강력한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브랜드로, 기존 브랜드의 혁신적지를 헤쳐나가는 선에서 재활용 소재로 제작한 스니커즈, 낮은 가격 위상을 재조명한 환경친화적 제품 제작 등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우루과이 출신의 디자이너 가브리엘라 허스트는 자신의 브랜드와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클로에(Chloe)에서 지속가능한 패션 선을 실현했다. 그녀는 2019년 봄/여름 컬렉션에서 패션 업계 최초로 탄소 중립 런웨이 쇼를 개최했으며, 재활용 소재와 생분해성 포장을 도입했다. 또한, 클로에를 B Corp 인증 기업으로 전환시키며,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브랜드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캘리포니아의 소재 혁신 기업 본 홀츠하우젠(von Holzhausen)은 식물 기반의 비건 가죽을 개발하여 패션, 가구,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공급하고 있다. 이들은 Apple, Dell, Tesla 등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소재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광저우의 펄 리버 타워(Pearl River Tower)는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고성능 유리창 등을 통해제로 에너지 빌

지속 가능 경험 제공
소재 선택부터 제품 생산까지
사회적 책임 고려한 고민 필요
소비 이후 ESG 실천까지 설계
를 실현했다. 이 건물은 자연 환기 시스템과 열 회수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지속가능한 건축의 모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브랜드는 ESG 원칙을 디자인에 통합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친환경 디자인 사고와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친환경 디자인은 '보여주기'보다 '지속 가능한 경험'이 중요하다. 진짜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해야 한다. 디자인 사고 기반의 경험은 '선택'을 '기본값'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ESG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브랜드는 단순한 제품이 아닌 윤리적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된다.

예를 들어, 나이키의 'Move to Zero' 캠페인은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사용 후 짐을 쓰레기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디자인은 소비 이후까지 설계하는 사안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디자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발정예인과 협업해 굿즈를 제작하는 브랜드, 노년층을 위한 가독성 높은 UX 디자인 등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브랜드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환경을 생각하고, 사람을 배려하며, 투명하게 행동하는 디자인만이 기후 위기 시대에 살아남는 길이다. 진짜 지속가능성은 '그들'과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디자인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후지연(디자인-작가)



이 단어가 사실을 살아가기 위한 기사이지만, 때로는 진실을 살고 싶은 콘셉트만으로도 단단히 붙어 있는 생태계에 대한 단순한 리고...
말 마음으로 계산대 '이것 하나 자신들에게도 아부트...'
추억을 들고 마트를 꾸미고 싶고, 비가 내리지 않길 바란다. 화창한 날은 지극히 아름다운 말 행동이었지. "세상을 이제 환기하며 내가 지구"



백서연 중학교 2학년

2025년 7월 20일 일요일



☆ 나의 생각과 느낌 !

⇒ 이 기사를 읽으며 나는 깊은 충격과 동시에 커다란 책임감을 느꼈다.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단순히 지구를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의 희생과 대가가 존재한다. 기사 속 예시인 '에코 마케팅'이나 '친환경 제품'은 겉으로는 지구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소비를 자극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마치 초록색 포장을 한 회색 진실을 보는 느낌이었다. 나는 이 기사를 읽고 "과연 나는 진짜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에코백을 들고 다니며 일회용품을 줄이고, 콘센트를 뽑는 등의 작은 실천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비롯된 실천인지, 아니면 단지 '착한 소비자'로 보이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친환경이란 겉모습이 아닌 '의식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이제는 개인의 작은 노력이 모여야 할 때이고, 나부터 먼저 '의식 있는 소비자'이자 '환경을 위한 실천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지구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나는 이 기사를 통해, 단순한 실천을 넘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실천을 통해, 나의 하루가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지구를 지키기 위한 나의 실천 !

⇒ 물건을 사러 나갈 때, 가방 속에 항상 챙기는 에코백 하나 처음에는 단순히 배낭뚱을 줄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나의 일상속 하나의 작은 약속이 되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계산대에서 에코백을 꺼내는 순간, 작은 행동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을 것 같았다. '이것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내가 하는 이 실천이 변화를 만든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 자신이 조금 더 자랑스러워졌다. 지금은 에코백을 쓰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함께 해보자고 권하게 된다. 이 작은 가방 하나가 지구를 위한 실천의 시작점이 되어준 것 같아 뿌듯하고, 앞으로도 환경을 위한 이런 실천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 환경일기장을 쓰며 ((나의 소감)))

⇒ 처음 환경일기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과제를 위한 실천'이라는 생각이 더 컸다. 집안이나 학교 물을 끄거나, 텀블러를 챙기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가는 일이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나의 하루를, 그리고 생각을 천천히 바꿔놓았다. 환경일기를 꾸준히 써보니, 단지 행동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오늘 내가 실천한 일 하나가 바다의 생명을 살리고, 미래의 나를 위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일상의 작은 실천이 갑자기 소중하게 다가왔다. 짬은 무심코 버리던 포장지, 들어올 때만 꺼내던 콘센트 스위치도 이제 '잠깐 멈추고 생각해볼게'라는 나를 발견했다. 그건 단순히 환경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였다. 환경일기는 한 달의 여정은 내게 '기록'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지금까지는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이제 나는 지구와 나, 서로를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종종 친구들과 장난처럼 말하던 "지구가 망하면 우리도 끝이다"라는 말이 이제는 진지한 책임감으로 다가온다. 가장 일상 관했던 나는 '학교에서 안 쓰는 콘센트 스위치를 끈 날'이었다. 별다른 행동이었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지구를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연웅이 아니라, 아주 작고 조용한 실천을 하는 우리라는 것"을. 이제 환경일기가 끝났다고 해서 실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지구를 위한 나, 나를 위한 지구'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이 환경일기를 펼쳐 보았을 때, 이 기록들이 단순한 줄임표가 아니라, 내가 지구와 함께 걸어온 흔적으로 남아 있기를 바란다.

